

## 오대산 국립공원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의 유형과 분포

허철호<sup>1)</sup>, 박상준<sup>2)</sup>, 김성용<sup>3)</sup>

국내에서는 자연 환경상태에서 발견되는 각종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을 주대상으로 내재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자연보존을 촉진하는 지질관광(Geotourism)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. 본 연구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부존하는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의 유형 및 분포상황을 조사하여 관광지질학(Tourism geology)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질관광 대상지역의 다양성 제고를 촉진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연해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배가하는데 있다. 조사대상지역인 오대산 국립공원을 구성하는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은 147개로 조사되었다. 이의 유형은 구조지형(55개)>풍화지형(51개)>하천지형(31개)>산지지형(8개)>호소지형=주빙하지형(1개)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

상기 조사 자료는 지질학 및 지리학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집단과의 심도 있는 선별과정을 거쳐 일반대중에게 흥미와 과학의 이해를 돕는 지질관광 대상지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 아울러, 수요자 지향형의 지질관광대상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질관광지역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, 지질관광 대상지역에서의 방문객 행동특성, 지질관광대상지역·방문객 성별에 따른 방문객 행동성향비교 및 지질관광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을 위한 분석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. 그리고 지질관광 대상물에 대한 풍화도 평가 및 보존기술개발 등 지질공학적인 부분과 환경과학적 측면이 병행된 연구 노력이 이루어질 때 관광지질학의 활성화가 결실을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.

---

**주요어** : 관광지질학, 국립공원, 지질 및 지형경관자원

1)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소(chheo@npa.or.kr)

2)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(electrum@korea.ac.kr)

3)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연구부(ksy@kigam.re.kr)